

박영숙 본지판 이사장

여성들의 조직을 통한 활동을 크게 여성운동과 여성단체활동을 구분한다. 전자는 대대적 사회, 환경, 경제적인, 반식민지, 인권 등 민족주의와 관련으로 사회운동의 주창으로서의 사회개혁 활동을 지칭하는데 후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문제 등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찾아 사회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개혁 사업을 제공하는 여성 활동을 말한다.

여성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성운동이 필요없는 세상을 지향하고 있어서 이것은 언젠가는 끝낼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우리사회에서 다양성과 포용성이 높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여성단체 활동은 추후 일로에 있는 행정력과 활동역량에 대한 사회개혁을 요구하며 비록 끝낼 수 없으며 끝내지 않고 지속되는 활동이다.

활동이 급격히 저속화한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동인으로 사회운동이 필요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다. 희망이란 자기가 노력한 만큼의 보상이 따를 수 있으며 그것을 후손에게까지 물려 주어야 한다는데 걸림이 있는 사회를 개혁하여 여성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이 있다. 이러한 사회운동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성단체의 활동이다.

사회운동이 집단의 힘에서 해방된 집단의 희망을 대항해 하는 것은 정부를 견제해서 성취해 낼 수 있는 의제라고 본다. 이미 선취한 국가들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것은 정부의 정책과 배려를 기약하는 사회개혁 행위가 되고 그리고 사회단체(여성단체)들의 현실적인 형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국가의 공동체적인 거버넌스 운영의 모순을 풀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의에너지를 여성단체 활동으로 승화한다.

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데 정부는 정부의 책임을 분담하고 있는 사회개혁을 저지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개혁 활동을 이분법의 이분법을 답지하고 있는 사회단체와 다른 여러 가지로 하여 활동하며 인본주의를 사회개혁을 추구해서 동등한 미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문제는 권력에 의해 이제 약 거론이 되면 거버넌스 체계가 붕괴되어서 일반 시민사회를 포용하지 않게 되고 불평등으로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어서 우리 활동에 따라 미치고 있는 것은 물론이지만 사회개혁 사업을 제공하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에서 배울 것이 아니라 영국의 시민사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제3부'를 이루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도 NGO 단체에서 (Compact)를 체결하여 국가의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함으로써 지속가능사회를 위하여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영국에서 활동하는 것은 40개의 민간단체들(200여 개)이 정부에 등록한 단체로서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공동 활동을 위한 기구로서 활동해 오고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시민단체들이 통합된 사회를 그려 내는데 공헌하고 있다.

앞으로의 여성들이 관망하고 있는 희망에 대한 활동을 해나가기 위한 지속 가능한 여성단체 활동을 정부와 사회를 리드해야 한다.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본지판 이사장 박영숙의 견해이다. (참고문헌 08-P-20)